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야!?

다음에 또 보러와!
안녕~♡

purple!

꿈밭의 세포들

글/그림
2022 인천초은초 5-7

기획/편집 윤보라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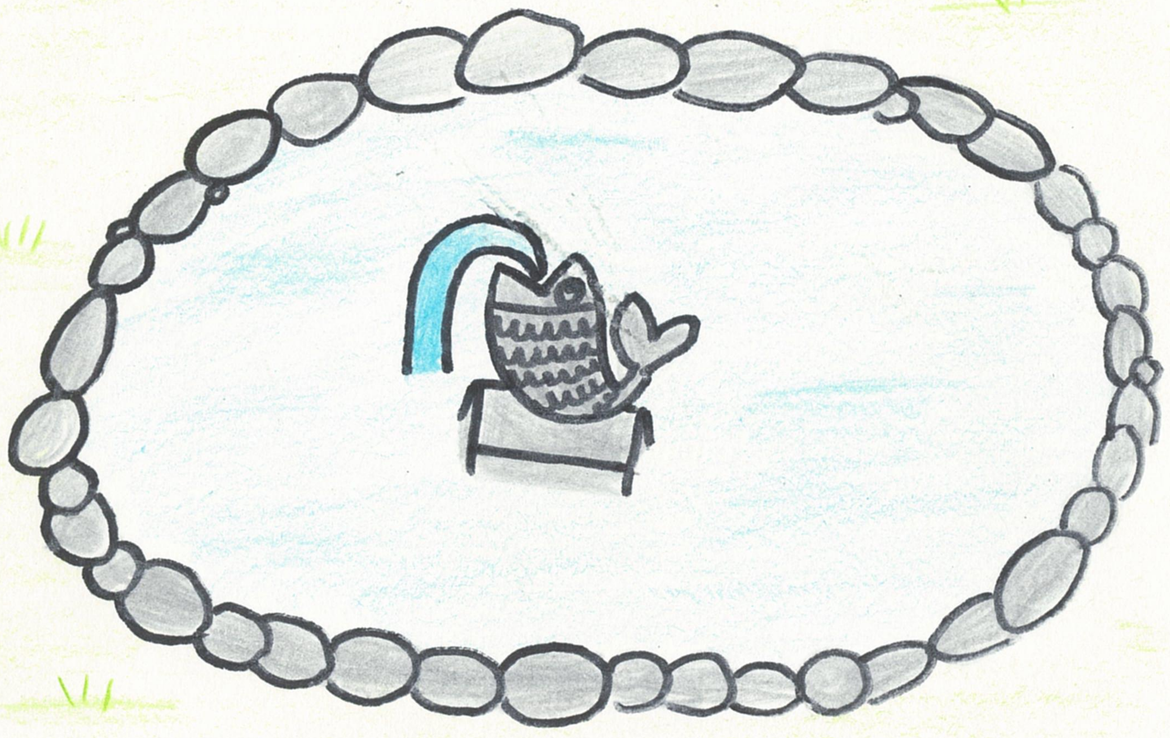
꿈밭출판사

도현
도원
재민
소영
민준
서윤
윤하
해솔
승한
유건
시우
권우
강민
채은
하은
승아
종서
서현
리원
성민
주원
라현
나윤

꿈틀이 세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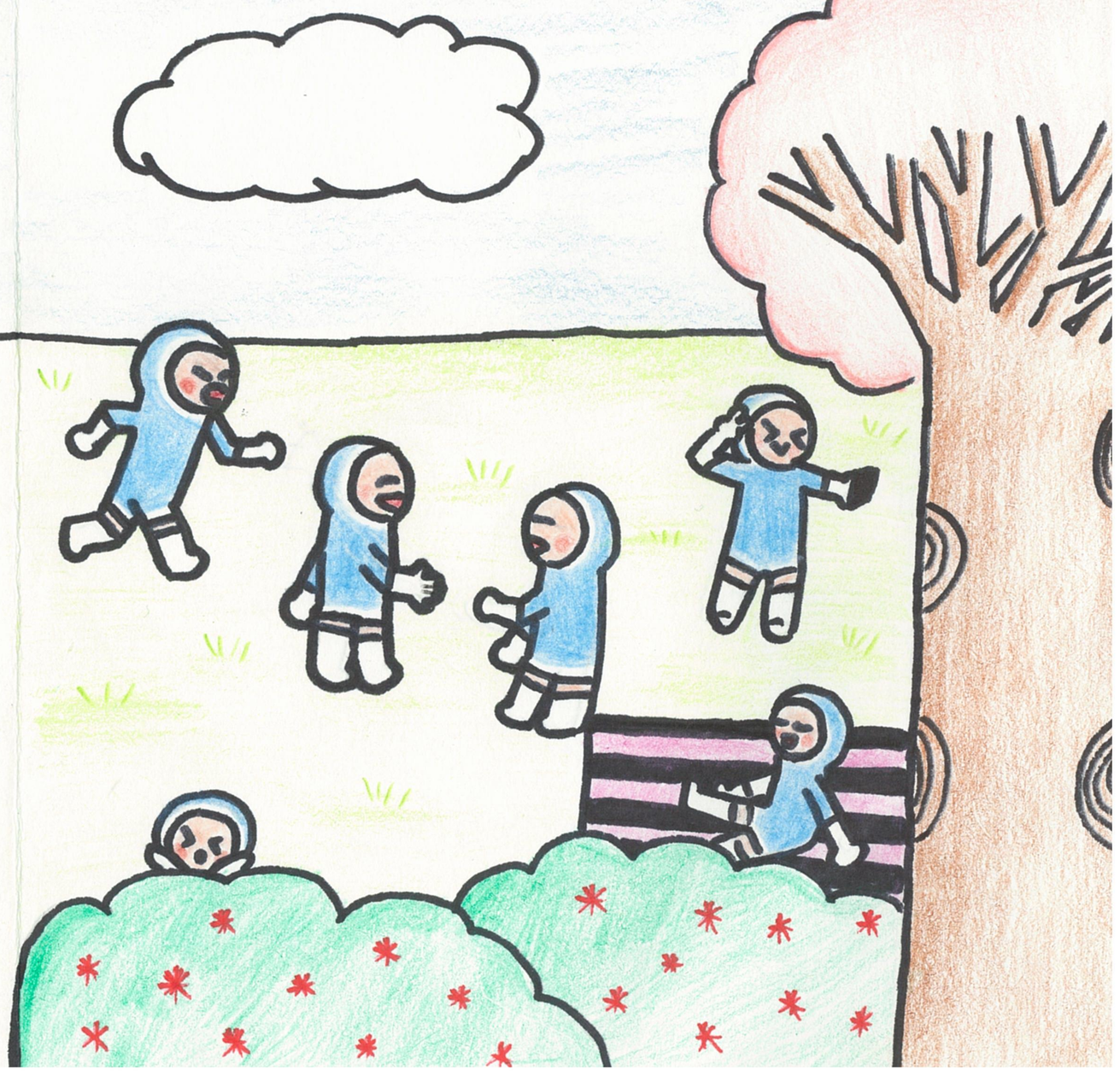
꿈밭 친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학교 안과 밖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꿈밭의 세포들 이야기!



세포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졌을지 궁금하지 않니?

지금부터 함께 세포들의 '그 날'을
클로즈업 해서 들여다보자.



수영장에 간 날

채은세포

내가 좋아하는 수영장에 가는 날이 왔다. 수영장에 갈 생각에 웃음이 많이 났다. 수영장에 거의 다 오니 더 신났다.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났고 다른 것들은 타니깐 별로 재미가 없었다. 야외로 나가서 물 폭포도 시원하게 맞았다. 더운 날에 가니 땀이 다 없어졌다. 오랜만에 놀이기구를 타니 정말 재밌고 신났다. 다 놀고 집에 돌아가 씻었다. 씻고 나오니 정말 상쾌했다. 다음에 수영장에 또 가면, 또 신나게 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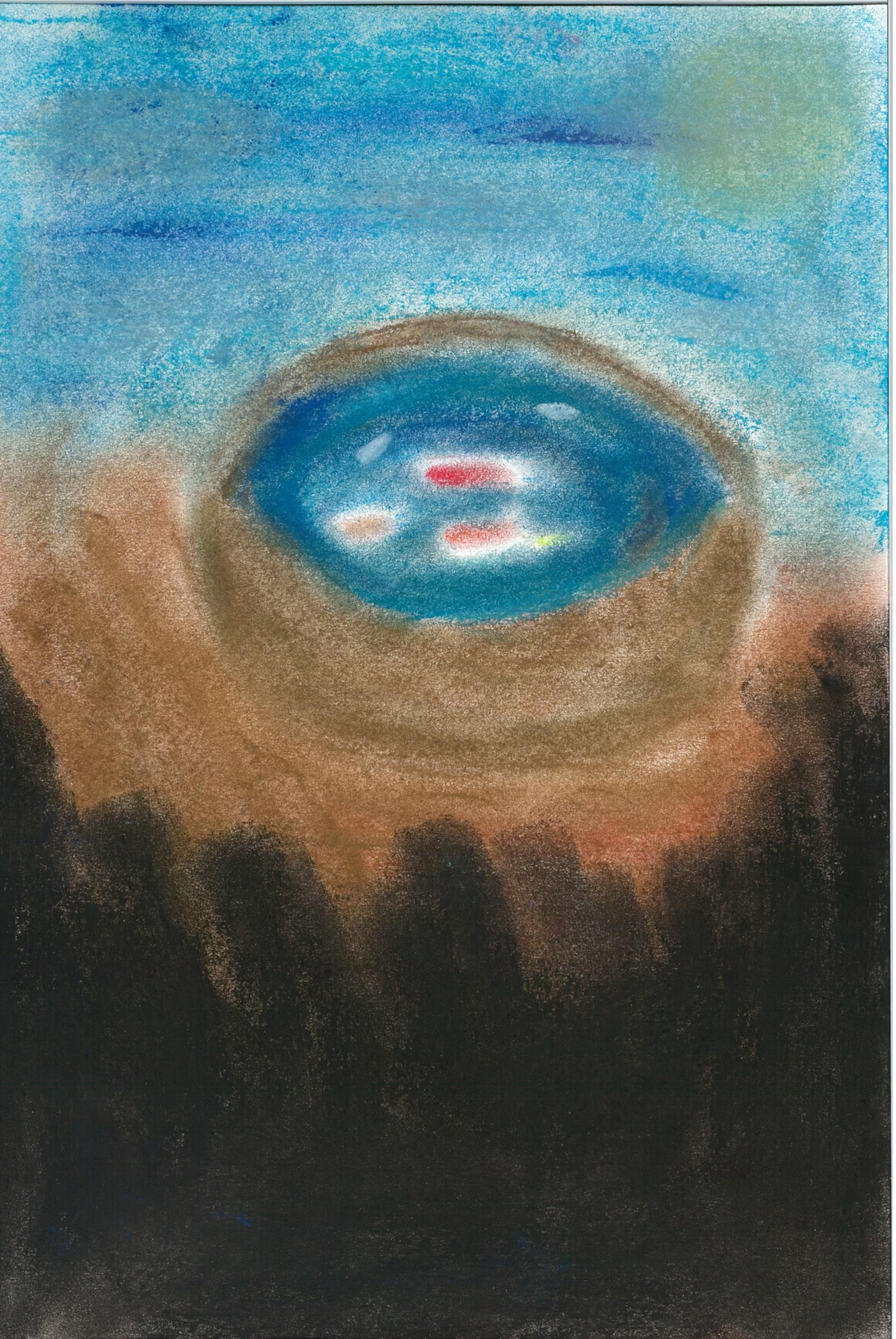
달고나 만든 날

도원세포

어느날 , 엄마가 달고나 만들 준비를 해 주셔서 달고나 만들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었다. 그래서 달고나를 만들게 되었다.

내가 혼자 만들 땐 소다 양도 잘 못 맞춰서 달고나가 많이 탔다. 그렇지만 엄마와 함께 만드니까 많이 타지 않고 맛있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설레고 감사한 느낌이 들었다.

달고나를 먹어보니 너무 맛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뿌듯했다.



강원도

서현세포

늦은 시간에 강원도에 도착을 해서 바로 저녁을 먹었다. 나와 오빠는 배가 고파서 정말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는 형님>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집에서도 항상 보았지만 여행 가서 보니 더 재밌었다.

다음날 아침에 고기를 먹고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절을 발견해 절 안으로 들어갔다. 절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 근처에 연못이 있어서 연못만 구경하고 갔다. 연못에 잉어가 많이 있어서 예뻤다. 연못을 구경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근처에서 마트가 보였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집으로 갔다.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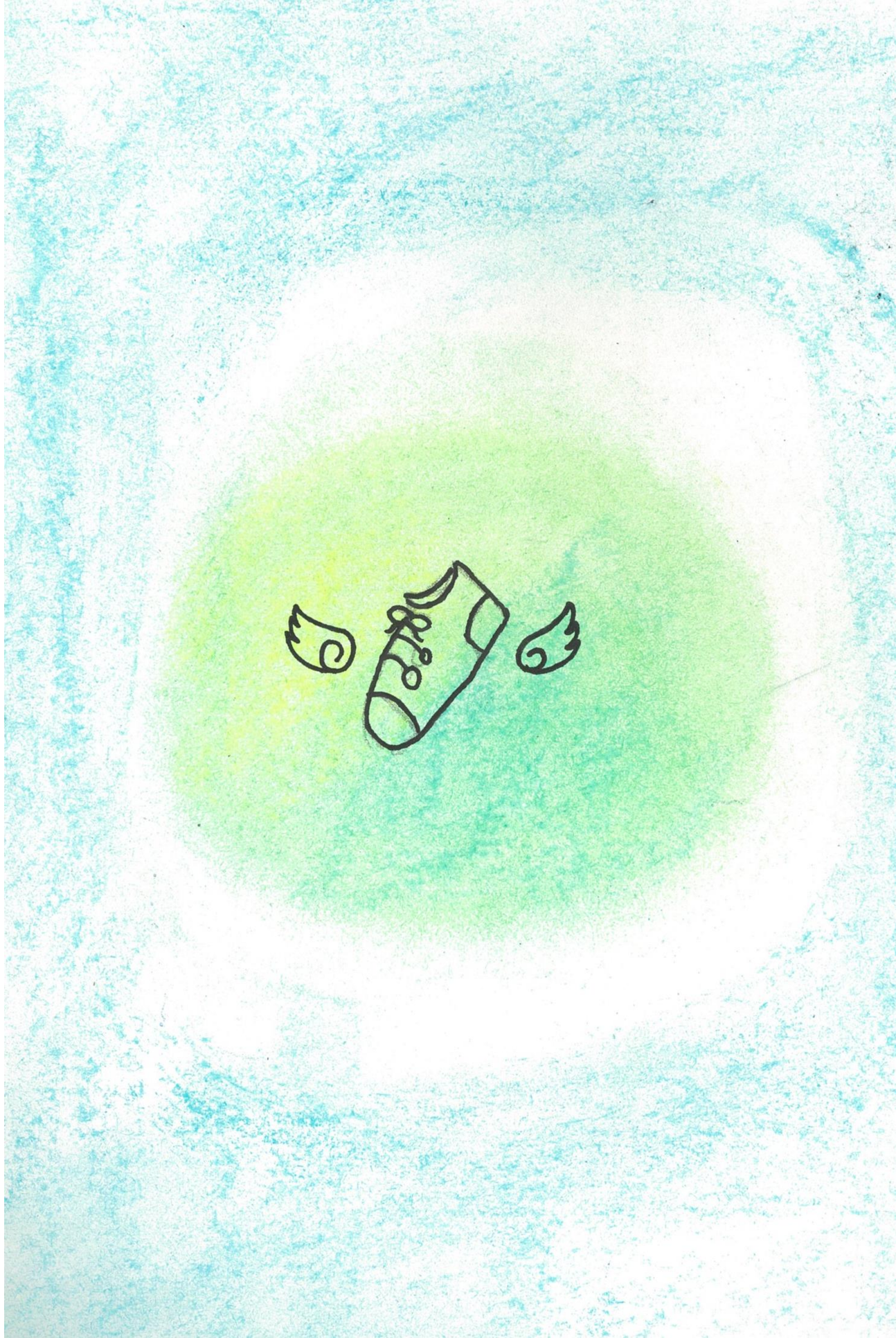
뭔가 좀 다름!

도현세포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아주 멀리 있는 호수에 갔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다. 나는 걷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가는 동안 뾰로통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좀 달랐다. 아주 달랐다. 발도 가볍고, 숨도 차지 않았다. 아주 산뜻하게 걷기를 시작했다. 하늘은 맑고 상쾌하니 텐션이 UP됐다. 가다 보니 배가 출출했다. 그래서 근처 가게에 들렀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다. 거기에다 멋있는 풍경까지!

좀 더 걷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다. 그래서 산책을 마치고 얼른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갔다. 맛있었다. 다음에 또 가야지!



얼렁뚱땅 첫 소풍

나윤세포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논 후 공원에 들어가서 돗자리를 깔려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돗자리를 깔만한 평평한 곳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깠는데 일회용품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멀리있는 편의점에서 포크와 컵을 사왔다. 컵은 아주 작은 종이컵이었고, 포크도 간이 포크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먹고있는데 종이컵 아래에서 물이 샜다. 두 겹을 겹쳐도 세 겹을 겹쳐도 계속 흘렀다. 엄마가 "소풍 처음 나온 티 난다니까!" 라며 웃으셨다.

다시 치킨을 먹고있는데 고양이가 나타났다. 이모께서 고양이를 무서워하셔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다. 그때 돗자리가 너무 많이 젖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내가 밥을 다 먹어서 내가 편의점에 갔다. 공원입구까지 가야해서 힘들었지만 운동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더 완벽히 준비해가서 더욱 더 재미있게 놀고 싶다.

영종도 이야기

승한세포

엄마와 함께 영종도에 갔다. 영종도에 가는 길에 안개가 껴서 조금 당황했지만 안전하게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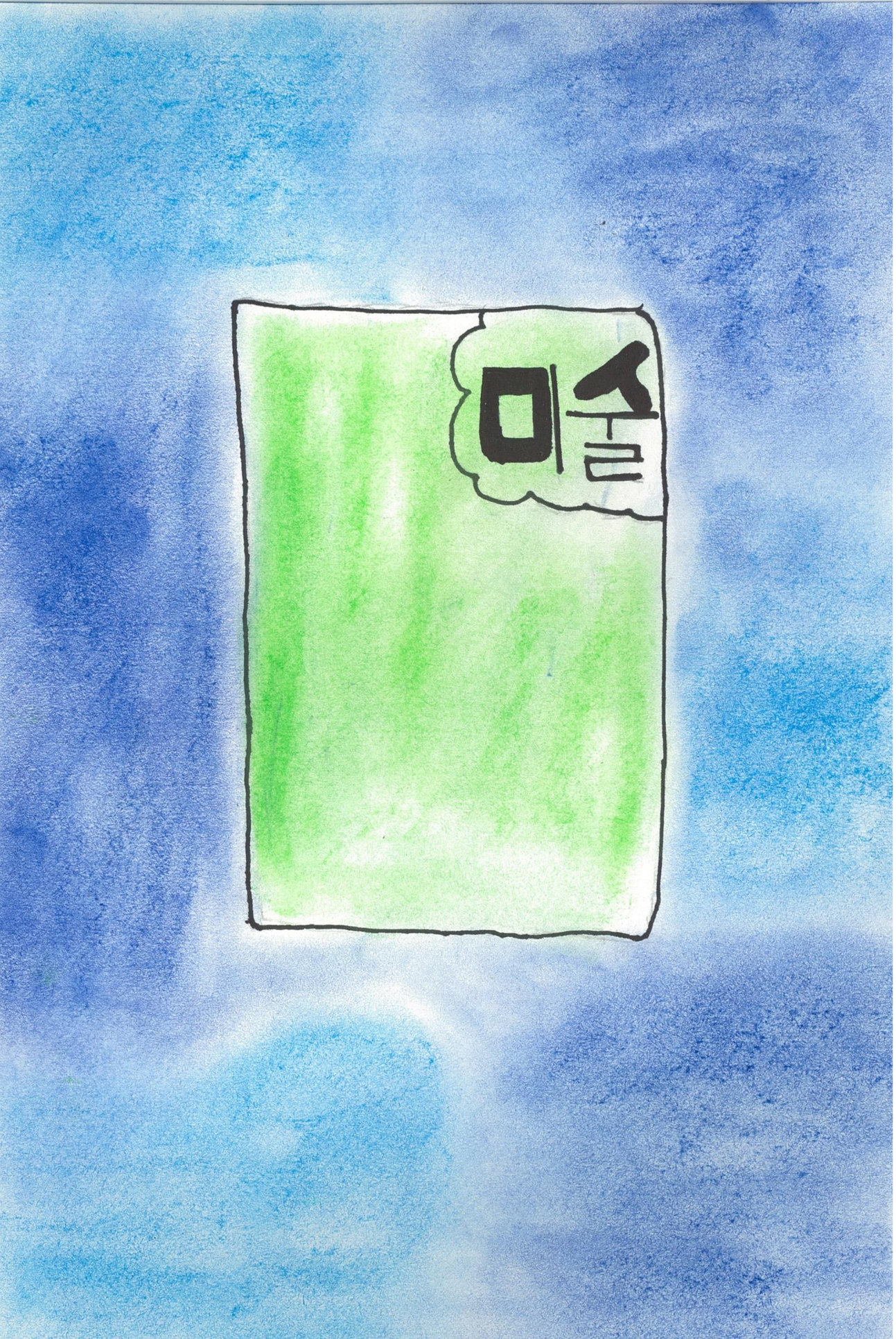
영종도에서는 바람이 너무 심했다. 그래도 바다도 보고 좋았다.

라면을 먹고 나서 바람 때문에 집에 가야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집에 가기전에 다트도 했다. 선물로 총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강아지가 아팠던 날

소영세포

나의 강아지가 아팠다. 왜 아픈지 몰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변비라고 했다. 난 놀랐다.
근데 옆 강아지가 힘이 쫙 풀린 채로 주인에게 안겨 있었다. 그 주인은 울며 의사 선생님을 불렀다. 수술하다 오셨는지 의사 선생님의 앞치마에는 피가 튀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그 강아지를 들어 수술을 했다. 난 놀라 뒤로 자빠질 뻔 했다. 여자 주인은 누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뛰어갔다. 그 여자 주인 아빠인 것 같았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강아지는 산책을 하다가 큰 개한테 물린 듯했다. 그것도 목을..
난 우리 강아지를 그 후 2일간 산책을 안 시켰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났던 그 강아지는 결국 죽었다. 그 주인은 죽은 강아지를 뒤쪽에 묻어준 것 같다. 나의 강아지가 아니고 다른 강아지이지만 죽은 것을 보니 슬펐다.



학교

라현세포

아침에 쨍쨍 해가 떴다. 엄마가 나를 깨워서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 입었다. 엄청 힘들었고, 졸렸다.

그런데도 학교를 갔다. 5분 뒤, 학교에 도착했다.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5층에 왔다. 공부를 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가졌다. 쉬는 시간을 가져서 덜 지쳤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갔다.

드디어 학교가 끝났다. 나는 급식을 안 신청해서 밥을 안 먹고 정문으로 나갔다. 나는 집으로 빨리 가서 밥을 먹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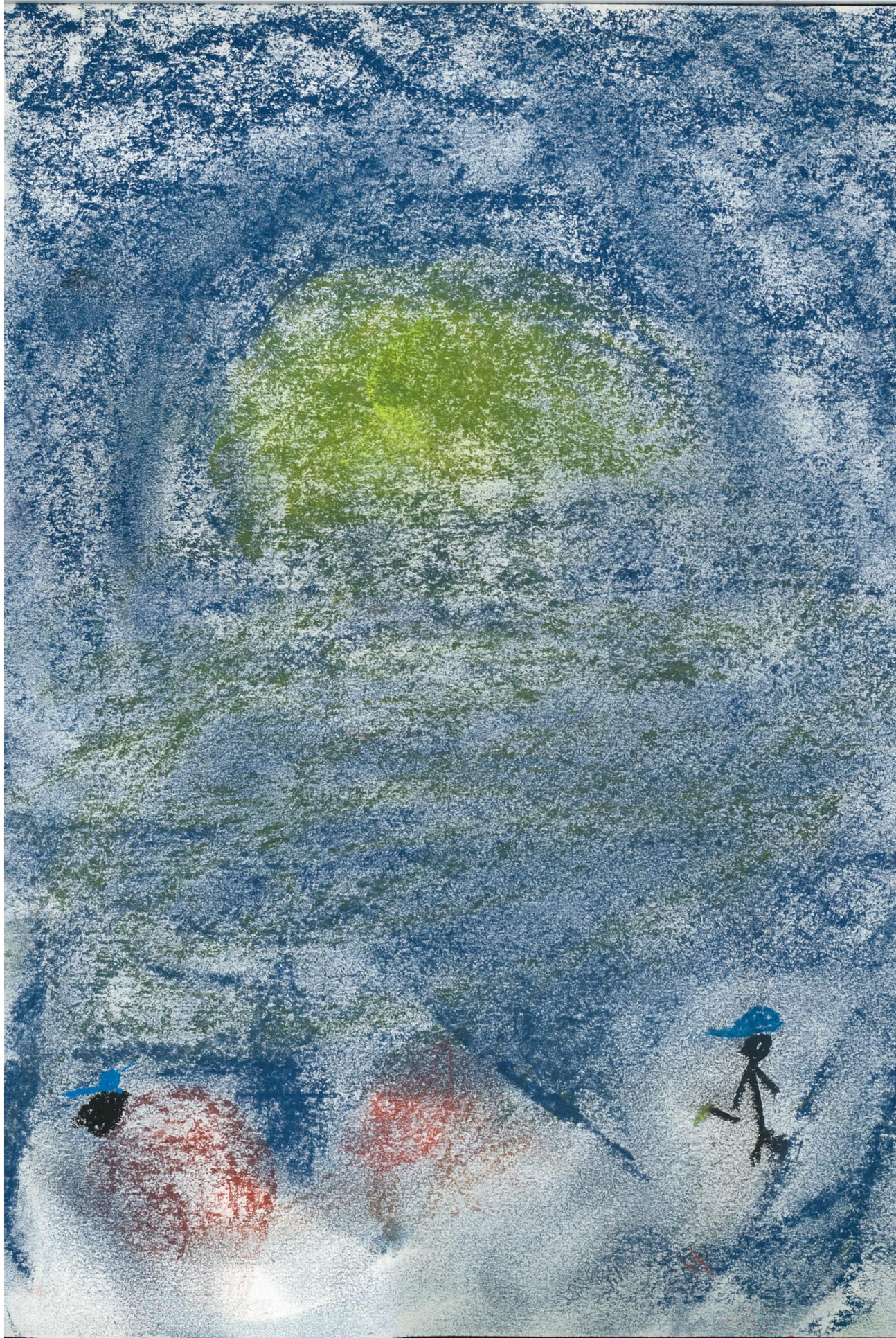
캠핑에서 저녁 런닝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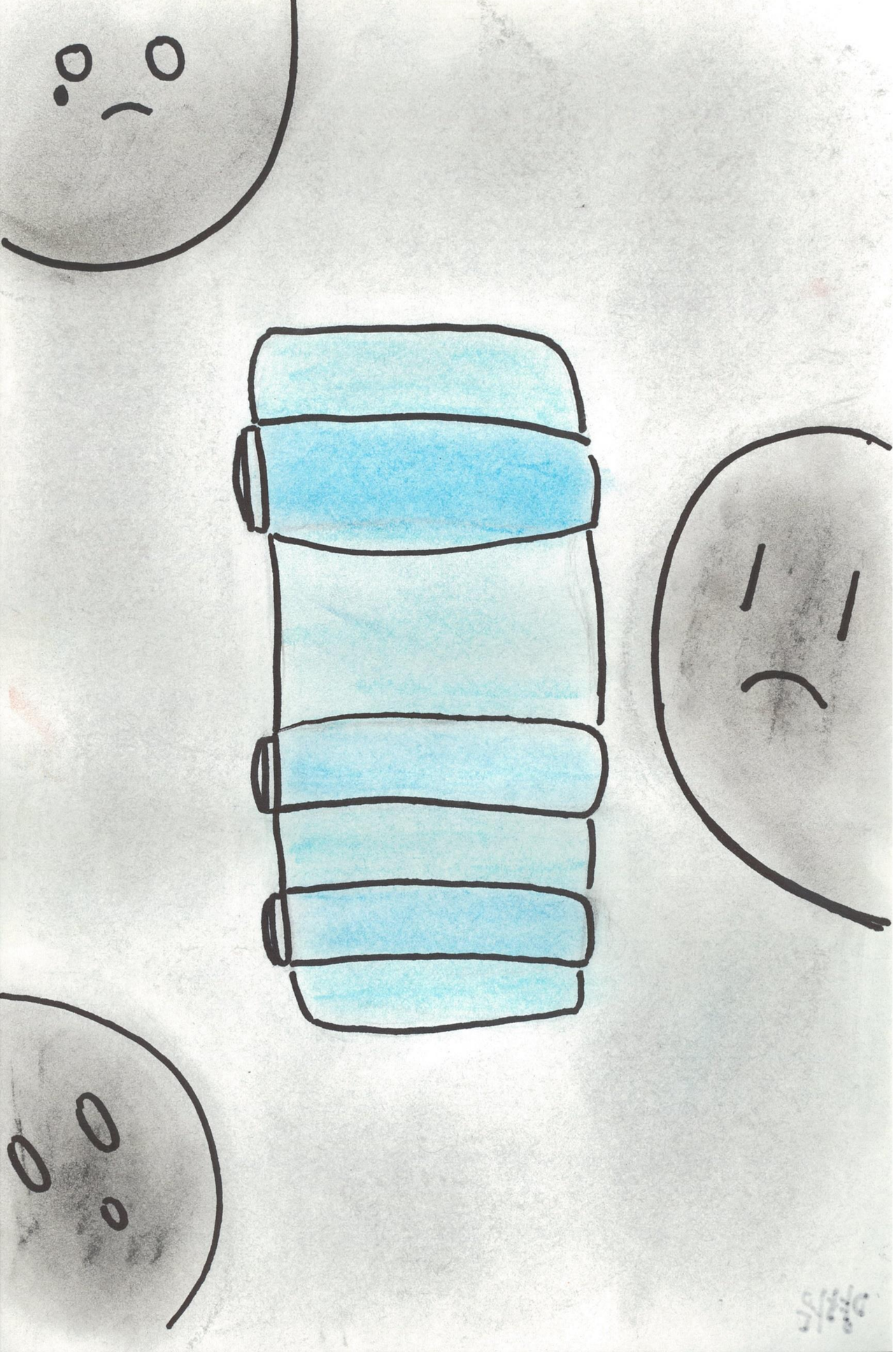
주원세포

캠핑 가서 저녁먹을 즈음이었다. 다들 트램펄린을 타며 친해졌다. 그런데 트램펄린은 어두워져서 더 이상 타지 못하게 되었다.

새로운 놀이를 생각했는데 술래잡기였다. 어두워서 어떻게 술래잡기를 할까 생각 했는데 전등을 쓰기로 했다. 뭔가 감성이 있었다. 런닝맨 느낌이 났다.

술래잡기를 해서 친구들도 많이 잡고 술래에게 몰래 잡혀 스파이도 했다. 많이 뛰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모두 해산했다.





손목을 다친 날

하은세포

평일에 친구와 영어학원을 다 끝내고 태권도를 갔다. 들어갔는데 모두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내가 들어갈 팀을 만들어주셔서 난 그 팀 줄에 섰다.

내 차례가 되어 뒤로 달리기를 하다가 거의 다 왔을 때 난 뒤로 넘어져버렸다. 원래 뒤로 달리기를 할 때면 중심을 잡기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달려야 하지만 나는 허리를 핀 상태로 달린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줄을 섰다. 그리고 머리를 넘기려고 손목을 움직였다. 그런데 손목이 너무나도 아팠다. 나는 혹시라도 손에 문제가 있을까 너무 두려웠다. 선생님께서 내 손에 얼음찜질을 해주셨다. 그리고 난 태권도도 못한 채 엄마와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손목에 금이 갔다고 하셨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이렇게 다쳐본 적이 없어서 무서웠다. 결국 난 반깁스를 하였다. 그 후 2주가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괜찮아졌다. 다음부턴 이렇게 안 다치도록 태권도를 조심히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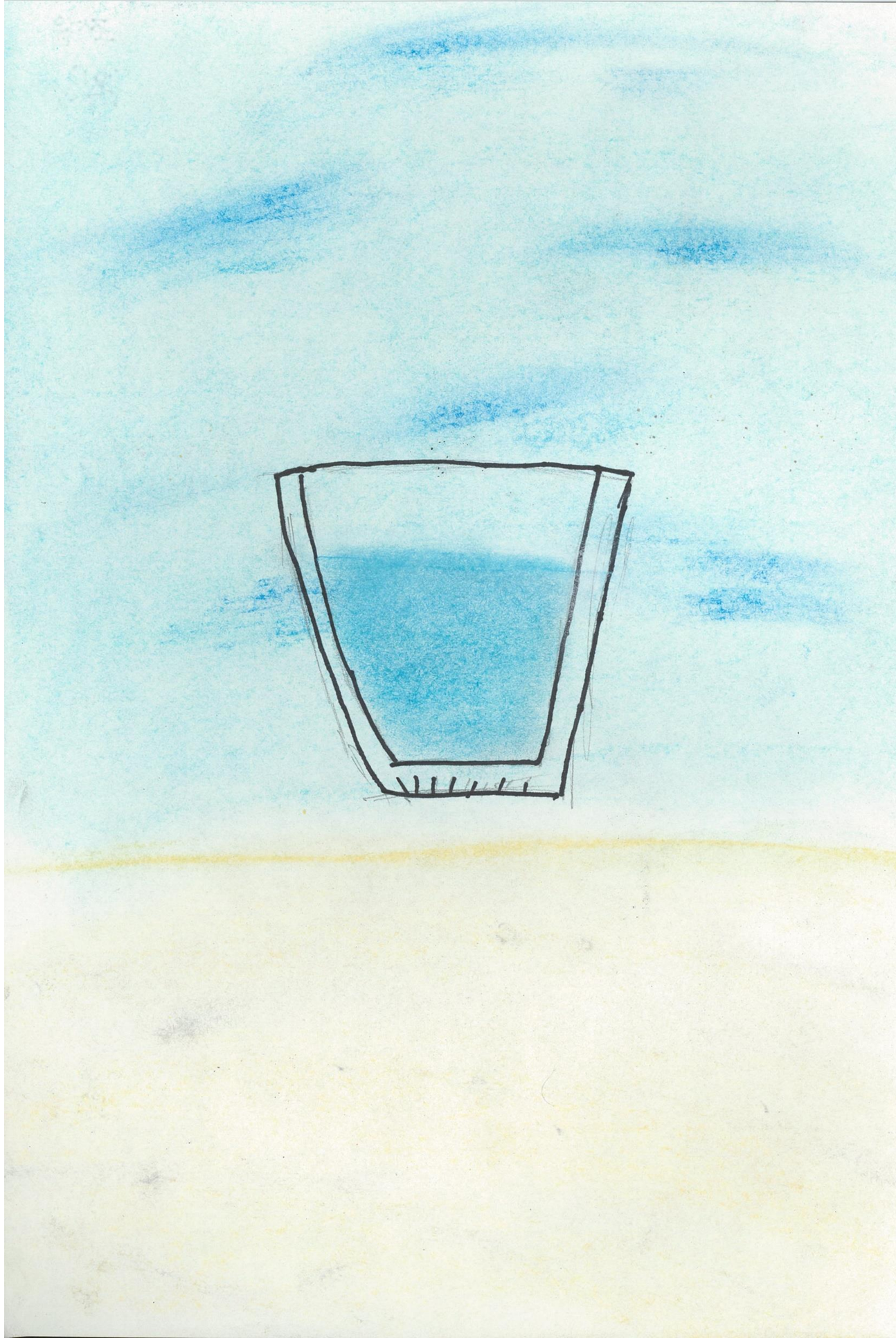
딸꾹질

서윤세포

평범한 아침, 일어나 보니 7시 45분이었다. 너무 비몽사몽 했다. 늦어서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물을 마시려고 보니....딸꾹! 헐.. 딸꾹! 망했다.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가보다.

숨을 참아봤다. 휴.. 딸꾹!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봤지만... 헤.... 딸꾹! "에잇!" 하는 순간! 최근에 봤던 딸꾹질 멈추는 법이 생각났다! "휴..다행이다." 하마터면 내일까지 이어질 뻔... 딸꾹!(부둥부둥) 어쨌든 딸꾹질을 멈춰보았다. 입에 물을 조금 머금고 삼키기를 천천히 반복해봤다. "야호! 드디어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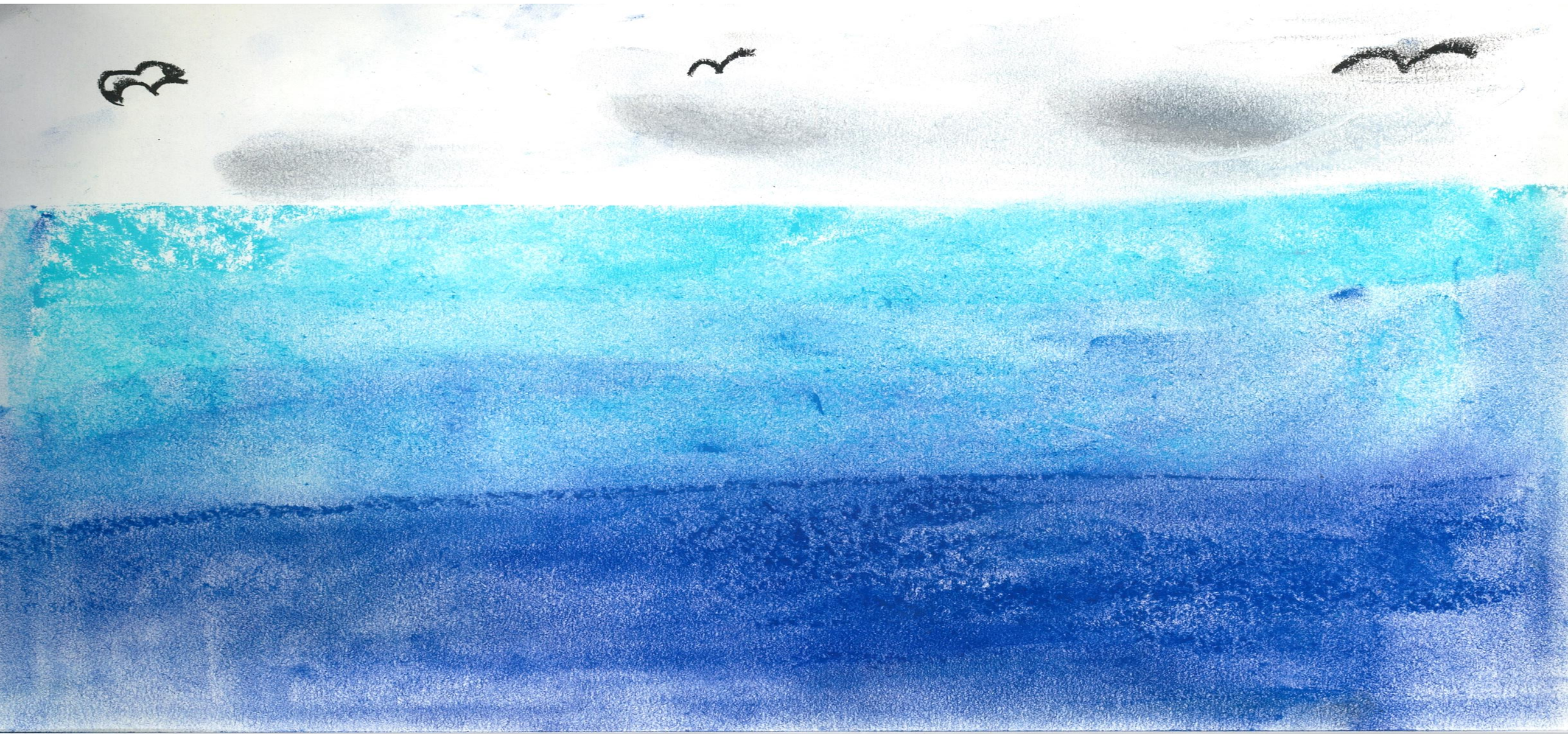
휴.. 그래서 나는 학교에 뛰어갔다. 내 자리에 도착하자, 또..! 딸꾹! 아잇, 진짜... 다시 해결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다!



월미도에서 그린 초상화

승아세포

나는 동생이랑 아빠랑 월미도에서 놀이기구를 탔다. 재밌었다. 바다 쪽에는 음식점이 있고,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나랑 동생을 그려줬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무척 궁금했다. 초상화를 집에 둘 곳이 없어서 아빠 가게에 두었다. 그림이 보고 싶은데 자주 볼 수 없어서 궁금하다.



무섭고 두렵고 아쉬웠던 맹장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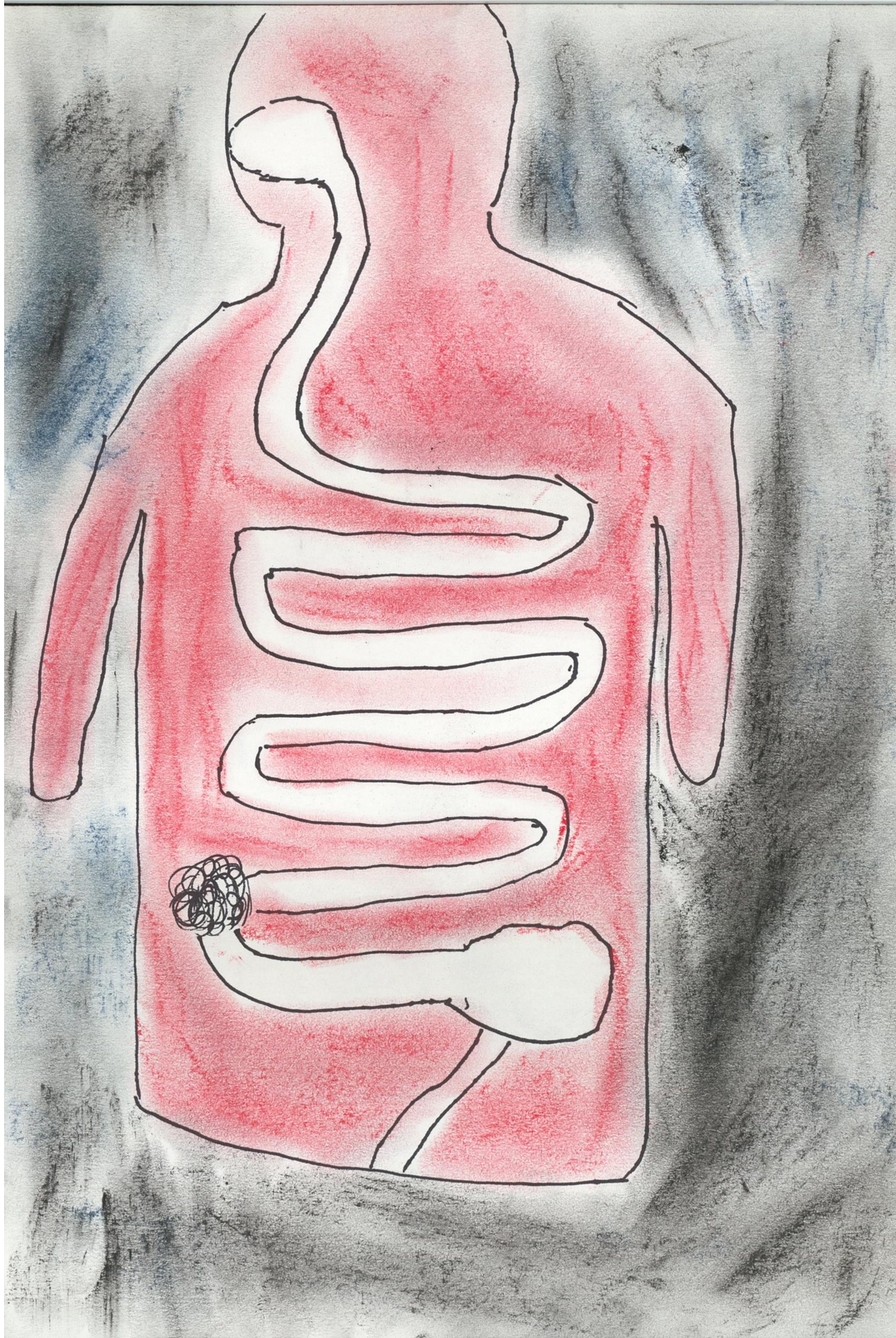
시우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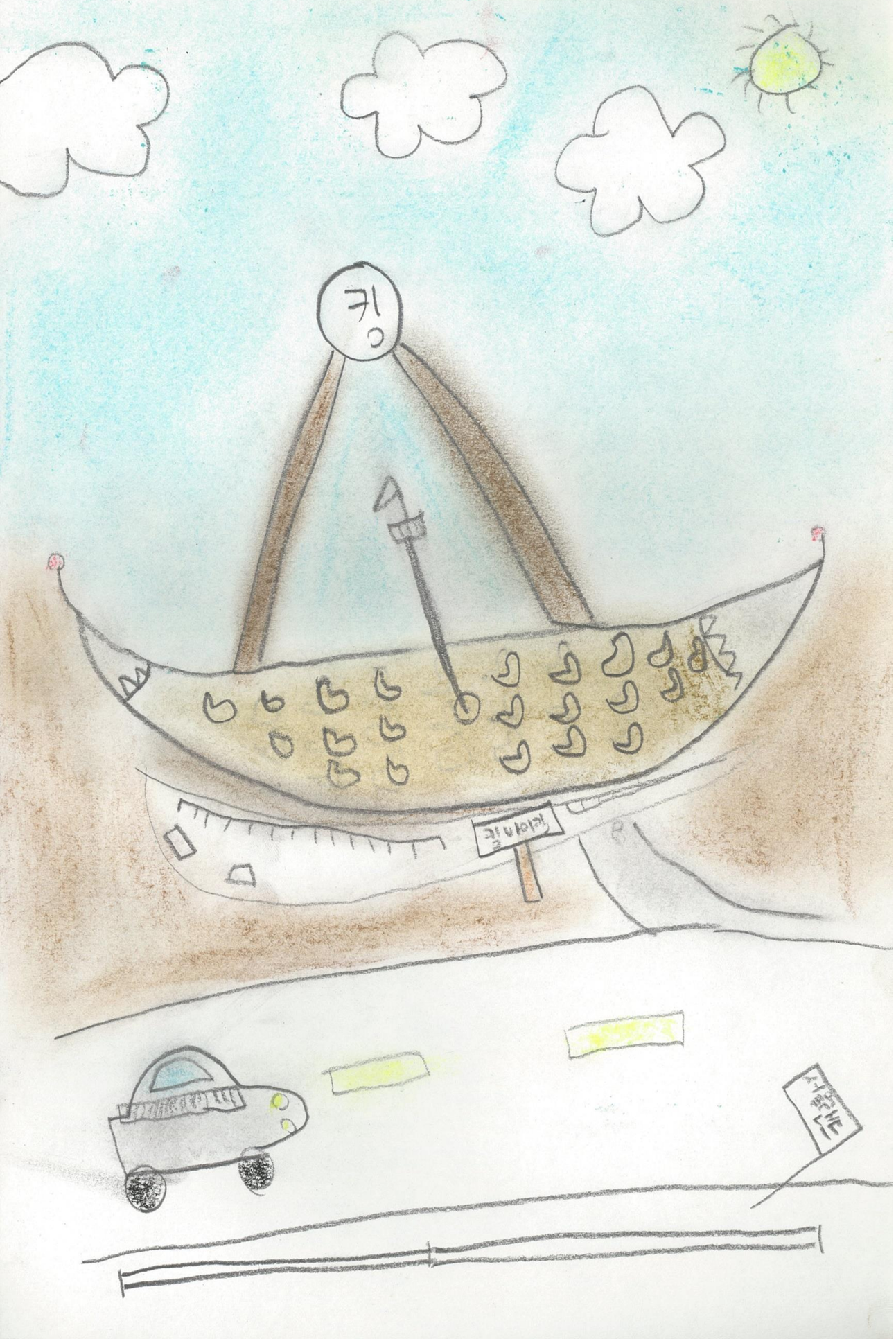
5년 전 겨울 아침이었다. 평화로운 주말,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태국여행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다.

비행기에 타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배가 살살 아팠다.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맹장이라고 하셨다.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맹장이 터져서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무서웠다.

수술을 시작했다. 시작하기 전 전신마취 주사를 3방 놓았다. 팔뚝에 맞는 주사가 아파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수술이 끝난 뒤 마취를 해서 아무 느낌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어지러웠다.

수술이 끝난 다음날, 태국 여행이 취소되어 아쉬웠다. 엄마아빠가 수술을 잘했다고 내가 좋아하는 팽이 장난감을 사주셨다. 기뻤고, 아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날라가는 기분이었다. 아빠께서는 배가 아픈 것을 잘 말했다고 하셨다. 그냥 태국여행을 가서 아팠다면 더 큰일날 뻔 했다고. 무섭고, 두렵고, 아쉬웠던 맹장수술이었다.





놀이공원

종서세포

2주 전 토요일, 가족들과 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갔다. 너무 멀어서 멀미가 났다.

도착을 하고 놀이공원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랐다. 그래서 줄도 너무 길었다. 30분을 기다린 뒤 바이킹을 탔다. 처음 타니 재미있었다. 그리고 닭꼬치를 먹고 또 타고, 또 먹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 후 저녁을 먹고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를 탔다. 재미있었다.

이제 코끼리열차를 타고 주차장에 간 뒤,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냉면을 먹고 집에 와서 씻고 잤다. 재미있었지만 힘들었다. 아주 좋은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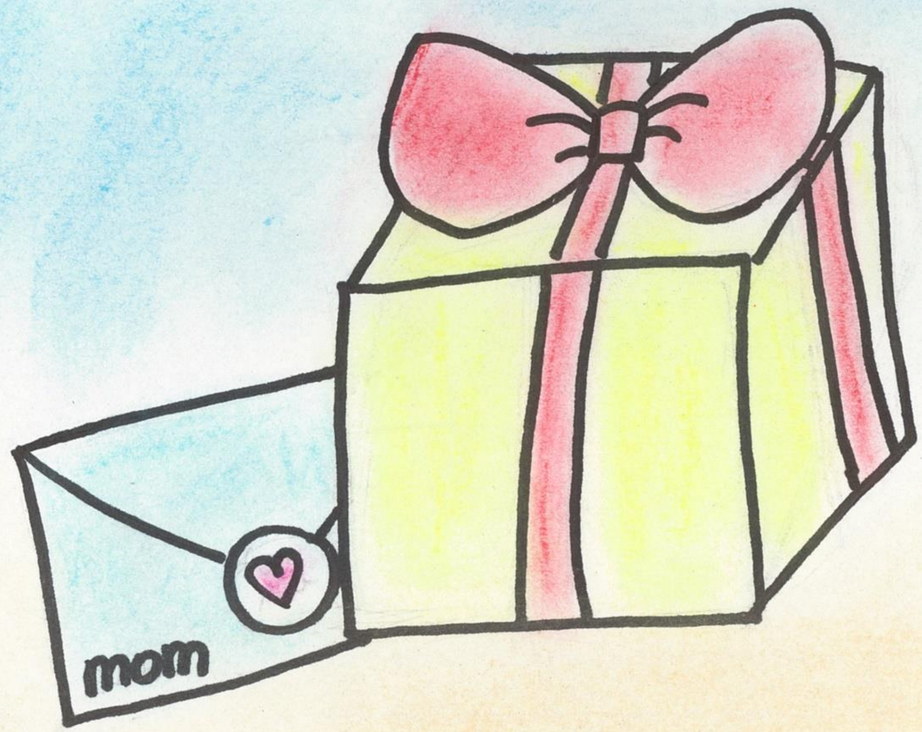
엄마 생신 선물

해솔세포

5월5일은 엄마 생신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생신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 생신 선물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엄마께서 핸드폰케이스를 원하신다 하셔서 귀여운 케이스를 골랐다.

그 다음 문구점에 가서 귀여운 곱창끈을 샀다. 엄마 생신 선물인 핸드폰케이스가 배송이 된 후 포장을 시작했다. 봉투에다 핸드폰케이스와 곱창끈을 넣고, 봉투를 꾸몄다.

그리고 엄마 생신 때 드리려고 선물을 한 켠에 놔두었다. 만드는데 노력했던 만큼 엄마께서 좋아해주시면 좋겠다.



컬러데이

민준세포

선생님께서 수요일이 처음으로 우리반 아이들이 전부 다 모이는 날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날에 컬러데이를 하기로 했다. 우리반 아이들이 전부 다 모이는 날이라는 것부터가 설레었는데 컬러데이를 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레었다.

그런데, 집 옷장에서 노란색 옷을 찾아보았지만 노란색 옷은 없고 갈색 옷만 있었다. 그래서 걱정을 가지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께서 노란색 옷을 구해오셨다. 그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풀리면서 엄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컬러데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다음번에도 컬러데이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컬러데이를 대비해서 미리 옷을 보아두어야 겠다.

부산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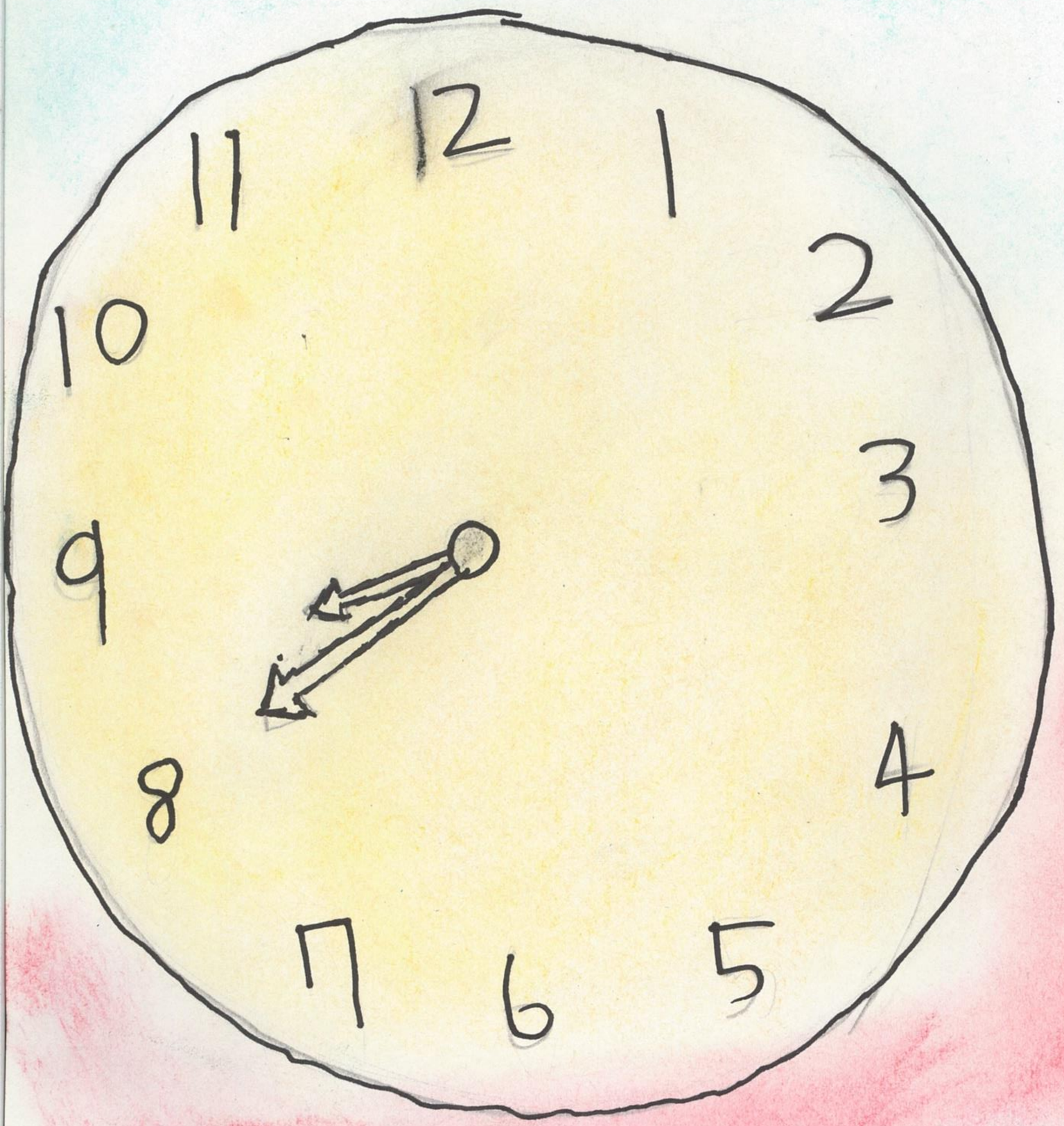
리원세포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왜냐하면 부산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제 미리 싼 짐을 가지고 차에 탔다. 설레었지만 조금 졸렸다.

그렇게 차로 5시간을 갔다. 도착하고 예쁜 바다에 가서 걸었다. 발에 모래가 들어와서 살짝 찝찝하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다. 호텔에 가서 수영도 하고 놀았다. 온천과 연결 되어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야외에 있었다.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웠다.

밤이 되고 배를 타기 전에 피자를 먹었다. 가족과 먹어서 더 맛있게 느껴졌다. 이제 배를 탈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배를 탔다. 처음에는 멀미가 많이 났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 가서 잠을 잤다.

아침이 되고 조식을 먹었다. 비몽사몽 했지만 맛있었다. 참 재미있는 부산 여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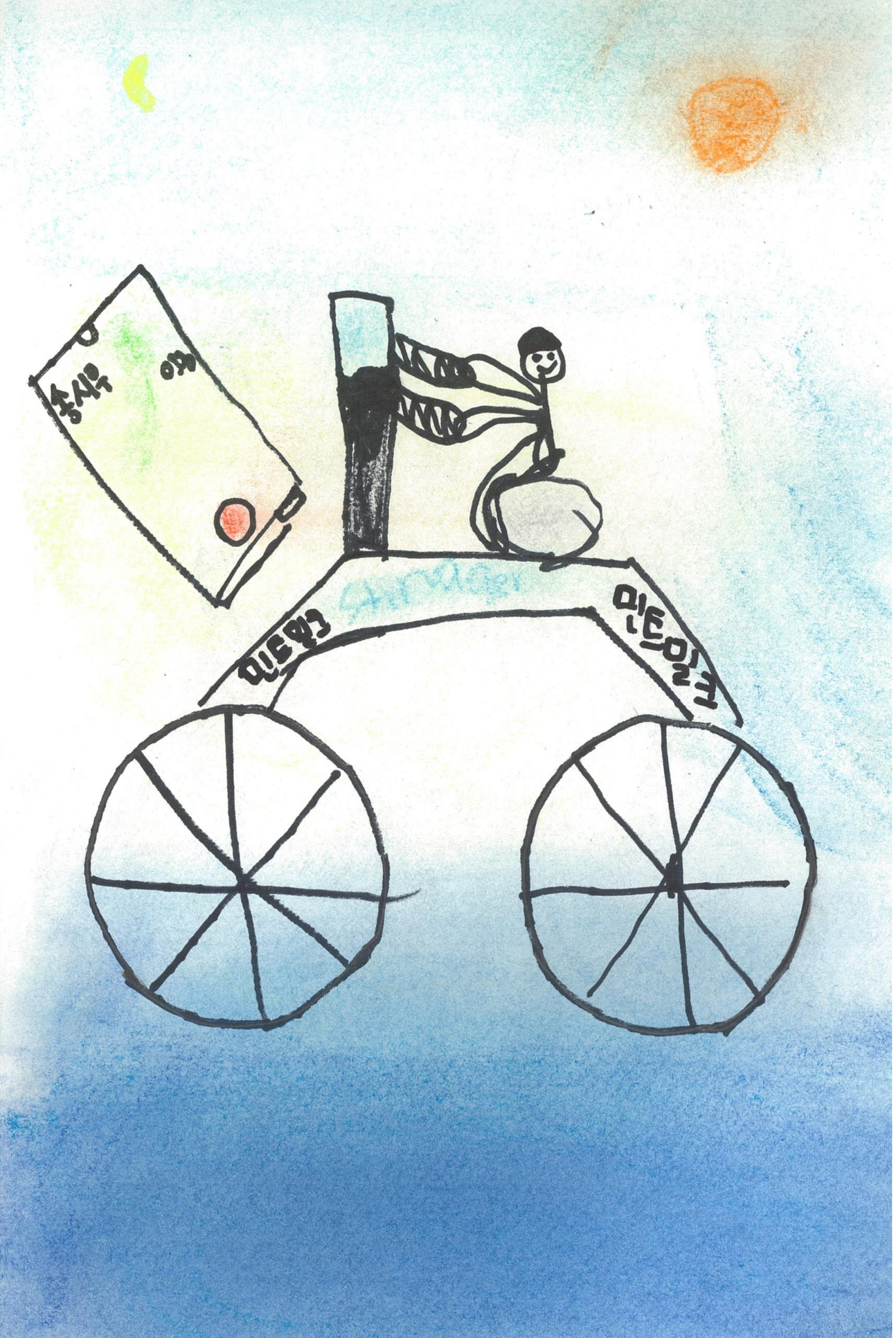


지각한 날

유건세포

나는 오늘 8시 40분에 늦게 일어나 버렸다. 처음에는 시계가 고장이 난 줄 알고 핸드폰 시계로 봤더니 8시 42분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바로 준비를 하고 달렸다. 거의 다 왔을 때 숨이 막혀서 힘들었지만 더 달렸다.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땀도 났었다.

학교에 도착해서 1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설명을 한 뒤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다음 수업은 했지만 죄송한 마음에 공부가 눈에 안 들어왔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학원을 마치고 잠에 들었다.



친구와의 전쟁-추격자와 도망자

강민세포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다. “강민아~ 우리 어디 좀 갔다 올게.” 나는 “응.” 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친구들이 안 오길래 전화를 해 보았다. 띡! 나: “여보세요! 너희 어디야?” 친구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우리를 찾아봐라.” 나: “여보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어이가 없었다. 그 뒤로 더 전화를 해보았고, 친구들 중 한 명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지만, 다섯 번 중 네 번이 거짓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 놀이터에 있다는 첩보를 받고 친구 다섯 명을 더 불렀다. 그 친구 다섯 명과 함께 배 놀이터로 갔다.

드디어 도망친 친구들을 찾았다. 그래서 혼자 온 척 하고, 친구들 다섯명과 함께 기습을 했다. 친구1: “I see you?” 도망친 친구들 : “악!” (비명 지르는 소리) 도망친 친구들은 또 도망을 갔고, 아파트 단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시 추격을 했다. 결국 같이 온 친구와 도망친 친구가 부딪혔다. 상황은 이렇게 끝났다. 도망친 친구들을 드디어 잡아서 통쾌했다.

여행

권우세포

엄마, 나, 동생, 형, 이모, 형동생과 함께 수영장에 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좀 피곤했지만 바로 벌떡 일어났다. 설레는 마음을 뒤로 하고 수영장으로 갔다.

수영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너무 신났다. 다음으론 실외에 나갔는데 수영하는 데가 있어서 재미있게 놀았다.

수영장을 떠나고 맛있는 대게도 먹고 팬션에 들어갔다. 12시에 자려했지만 11시에 잠들었다. 다음날 일어나서 옷 입고 바로 바다로 갔다. 바닷물이 엄청 차가웠다. 그리고 보트를 탔는데 엄청 빨랐다. 엄청 재밌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차에서 쓰러지는듯이 잤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롯데월드

성민세포

아침 일찍 엄마께서 나를 깨우시고 롯데월드를 간다고 말씀하셨다. 졸리긴 하지만 롯데월드를 가려해서 신났다.

차를 오래 타고 롯데월드를 가느라 모두가 조금 지쳤다.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걷느라 동생이랑 내가 힘이 빠졌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랐다. 하지만 놀이기구를 타서 신났다.

롯데월드에서 많이 놀고 밖으로 나왔다. 롯데월드에서 노니 기분이 좋고 재밌었다.

정체불명의 도플갱어 사건

윤하세포

오늘은 기분 좋은 주말이다. 오래간만에 가족과 외식을 하는 날이라 즐겁고 신났다.

집에서 나와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동생이 식당을 지나쳐서 혼자서 막 홀린듯이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다. 엄마가 동생을 몇 번이나 불렀지만 동생은 대답하지 않고 이상한 데를 가기만 했다.

더 이상은 멀리 가면 안될 것 같아 내가 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조윤후!!" 그러자 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누나, 왜 누나가 거기 있어?"라고 말했다. "나 저기서 너 부르고 있었지!" 이상한 상황에 놀랐지만 우선 식당에 들어가 동생에게 몇 번이나 더 물었다.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응. 누나가 따라오라 했잖아."

무섭고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내가 직접 도플갱어와 마주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네

재민세포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오전 12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나갈 준비를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지탈을 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서 의자를 찾다 그네가 눈에 들어왔다. 의자가 없어 할 수 없이 그네에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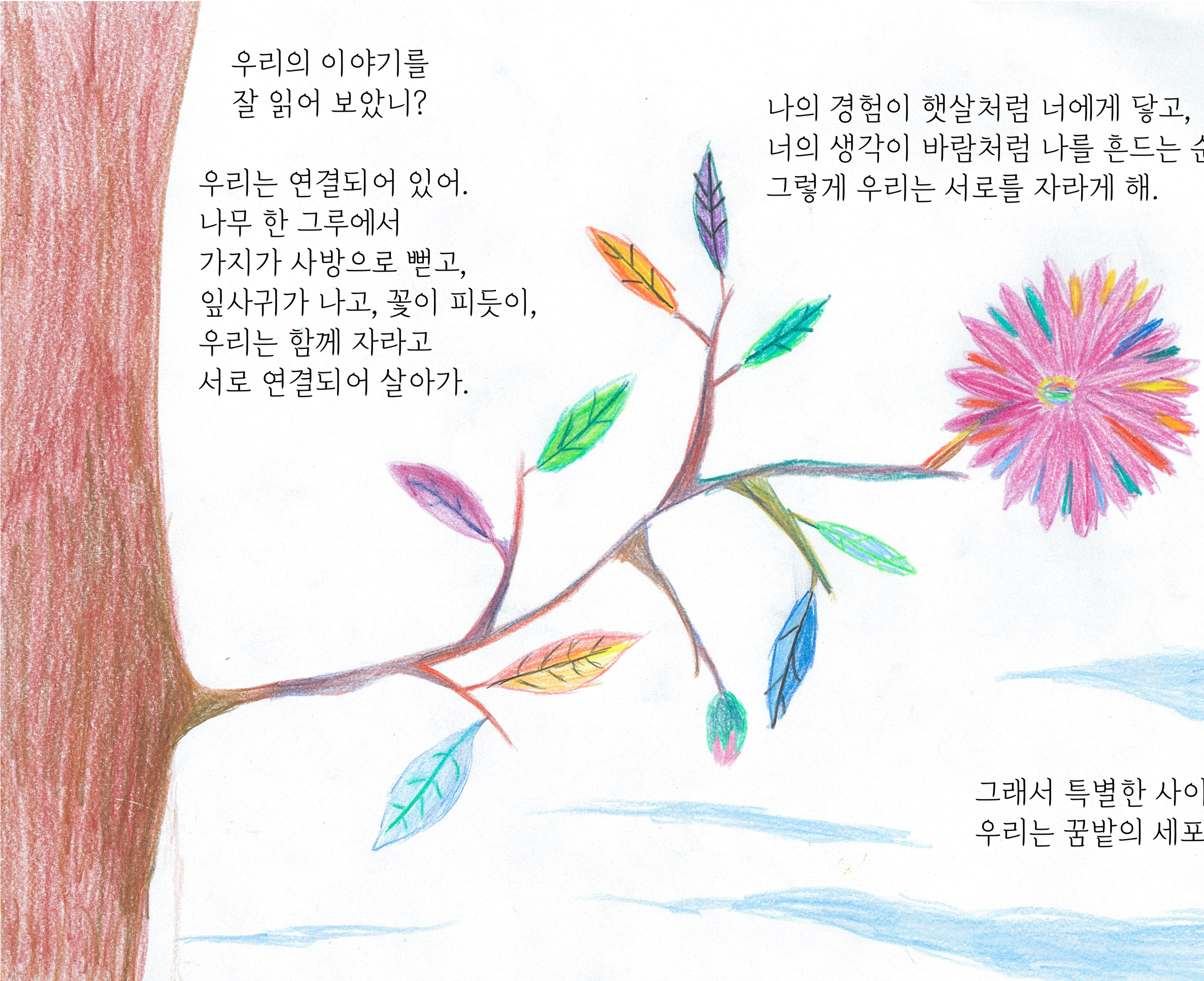
앞으로 뒤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자 "삐걱 삐걱" 소리가 났다. 녹이 슨 쇠들이 맞닿아 나는 소리였다. '그네가 끊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몇 년 동안 안 끊긴 걸 생각하며 안심하고 그네를 탔다. 바람에 스치는 옷깃 소리, "쉭~ 쉭~" 올라갔다 내려올 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 여름이 왔다는 신호를 주는 매미 노래 소리 등이 여러가지로 나를 힐링시켜 주었지만, 이런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생각과 '우리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는 이런 광경을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었던 그곳의 그네를 다시 타고싶다. 꼭 같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타고싶다.

우리의 이야기를
잘 읽어 보았니?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나무 한 그루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뻗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는 함께 자라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

나의 경험이 햇살처럼 너에게 닿고,
너의 생각이 바람처럼 나를 흔드는 순간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자라게 해.



그래서 특별한 사이.
우리는 꿈밭의 세포들.

꿈밭의 세포들

지은이 | 2022 인천초은초 5-7 꿈밭
펴낸이 | 꿈밭지기 윤보라
발행일 | 2022년 6월 10일
펴낸곳 | 꿈밭출판사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초은초등학교 5학년 7반 어린이 작가들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